

# 한, 흥준표-임태희 체제 출범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 MB 신임 두터워 '당내 실세' 역할 기대 친박 복당, 당·정·청 조율 등 난제 많아

한나라당은 22일 신임 원내대표에 흥준표(서울 동대문구·4선), 정책위의장에 임태희(경기 성남분당을·3선) 의원을 선출했다.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22일 선출된 흥준표, 임태희 의원은 원내 '투톱'으로 향후 1년간 원내 153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내에서 실현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맡게 됐다.

두 사람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데다 정치적 역량도 갖추고 있다는 평이어서 '실세 원내사령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과 비례해 어깨에 얹혀진 과제 또한 만만치 않아 협력이 예고된다.

흥 원내대표의 경우 당장 18대 원구성을 위한 대야 협상력을 보여줘야 한다. 개인 협상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관계 속에서 '대부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내 현안인 탈당친박 인사들의 복당 문제도 매끄럽게 조율해야 하는 '해결사' 노릇도 떠안고 있다. 당정·청간 원활한 소통과 정책조율에 대한 시스템 구축도 풀어야 할 '숙제'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 출범 초부터 추경예산 편성을 비롯해 학교 자율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등에서 드러난 당정간 엇박자를 해소하고 정책의 양면(兩輪)으로서 균형추가 되어 할 책무를 지고 있다.

민심을 아우르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신뢰받는 정책대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화음'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다.

특히 4대강 정비로 수정 추진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각종 규제 완화, 민생개혁 입법 등 굵직한 정책과제들이 18대 국회 초반부터 추진될 것

로 보여 집권 여당의 정책 지휘자로서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지적이다.

당 안팎에서는 추진력과 과단성을 갖고 있는 흥 원내대표와 기획력과 안정성을 겸비한 임 정책위의장의 '콤비네이션'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흥 원내대표는 선출 직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정청 관계를 조율하겠다"면서 18대 국회의 과제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노동시장 안정을 꼽았다.

그는 향후 대야 관계에 대해 "야당을 인정하고 야

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대접하면서 산적인 현안에 대해 미리 협의할 것"이라며 '동반자론'을 밝혔다.

또 친박 복당과 관련, "복당의 원칙이 정해진 만큼 조속한 시일내 복당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뒤 "박근혜 전 대표도 빠른 시일 내 만날 것"이라며 "복당심사위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직 인선은 당 화합을 위해 전문성·지역성·당령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계파에 관계없이 능력 위주로 뽑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실제로 원내 수석부대표에 친이계인 주호영 의원을, 수석 정조위 의장에 친박 성향의 최경환 의원을 내정한 것은 이 같은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이 최근 이반된 민심과 경제현안 여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실타래처럼 얽힌 당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풀이할 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흥준표(가운데), 임태희(오른쪽) 의원과 현 강재섭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꽃다발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젠 광주 R&D 특구 지정 위해 최선"

### ■광주과학기술원법 국회 통과 주역 김 동 철 의원

"광주 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17대 국회를 통과, 광주 과학원에 학부가 신설됨에 따라 이제 광주시가 R&D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광주 과학원법 개정안의 극적인 17대 국회 통과 산파역을 한 통합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산 갑)은 22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광주 과학원법 개정안의 17대 국회 통과 과정을 되짚어 보니 참 우여곡절도 많았다"며 "개인적인 노력보다는 운도 따랐고 김효석 원내대표, 염동연 의원 등의 측면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광주 과학원법 개정안과의 인연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구 민주당의 한화갑 의원이 발의한데다 광주시의 별다른 요청도 없어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의 광주지역 의원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같은 당의 과거정위 위원과 고성 광주시의 R&D 특구 지정에



개정안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는 광주시당위원장을 맡을 생각이며 광주와 호남의 미래를 위해 매진하겠다"며 "상임위는 광주 R&D 특구 지정에 대해 지식경제위원회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가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김 의원은 특히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를 넘겨 위해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 통과에 나선 한나라당과 부득이하게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광주 과학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임시국회 과거 정위에서는 한나라당 위원 10명이 참석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김효석 원내대표만이 참석, 겨우 과반을 채워 광주 과학원법 개정안을 법사위로 넘겼었다"며 "법사위에서도 결사 반대했던 대전지역 일부 위원들이 자리를 비워 본회의 상정이 별다른 진통없이 이뤄지는 등 운도 따랐다"고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는 광주시당위원장을 맡을 생각이며 광주와 호남의 미래를 위해 매진하겠다"며 "상임위는 광주 R&D 특구 지정에 대해 지식경제위원회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수도권 규제 완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핫 이슈'로

### 이강래·홍재형 '비수도권 소외' 결집 시도

### 원혜영·김부겸 '이분법적 평가' 발끈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관통하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非) 수도권 출신 주자간에 미묘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경선후보로 등극한 원혜영·김부겸, 이강래·홍재형 의원이 각각 후보 단일화 협의에 나서며 등 원내대표 선거전인 수도권 대 호남·충청 연대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북 출신의 이강래 의원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충청권이 가장 직접적 피해를 받을 것이라

는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충청권 의원은 비수도권 의원과 연대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나와 홍재형 의원의 단일화 협의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출신이 원내 사령탑을 맡을 경우 수도권 규제 완화,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 지방균형 발전 이슈에 있어 수도권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들어 비수도권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충북 출신 홍재형 의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는 반드시 막아낼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18대 총선 당선자 81명 중 지역구 66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27명, 호남 25명, 충청 8명 등 수적으로는 비

수도권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수도권 출신인 원혜영, 김부겸 의원의 "이분법적 평가"라며 발끈했다.

원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예전부터 확고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철학을 갖고 있으며 수도권은 비만이고 지방은 영양실조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상생 발전의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지방 균형발전 논리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정책비전 토론회를 통해 균형 발전을 포함, 5대 쟁점에 대한 특위를 국회내에 설치해 충분한 국민적 토론을 통해 추진해 나가자는 공계제안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단일화 중재자임을 벌여 당내 중립지대 그룹 7명에 수도권 3명 뿐 아니라 호남 3명, 충청권 1명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논박의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

## 野 '재적 과반수' 확보 가능할까

### 정운천 장관 해임안 처리 표 단속 분주

### 공조편 처리 무난...부결편 주도권 상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이 23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앞두고 가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수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펴고 있다.

특히 야당은 한나라당이 해임안 표결을 물리력으로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단독으로 재적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실력저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야권 원

내지도부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쇠고기 재협상 문제로 형성된 야당 공조에도 균열이 발생해 정국 주도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한 야당 원내대표들은 22일 소속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23일 오후 본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줄 것과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당부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현재까지 민주당 132, 선진당 9, 민노당 6, 무소속 8석 등 모두 155석을 확보했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재석 291석의 과반인 146석만 확보하면 해임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민주당 주창대로라면 해임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무소속 의원 중에서는 김선미, 안영근, 유시민, 유재건, 이인재, 이해찬, 임종인, 이상열 의원 등이 표결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야권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해임건의안 표결의 특성상 만의 하나 '반란표'가 생길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친환경 전원 주택단지

신환경 신도시의 심원 대지조성사업

### 광주 출퇴근 가능!!!

【북산, 칠곡, 삼주지구 (19~20분 소요)】

#### 청정지역 담양 수북

#### 병풍산, 삼인산에 둘러싸인 전석의 명당집터

- 북광주 IC개항으로 도심 진입 및 고속도로 (호남, 서해안, 8차선) 원활한 소통
- 15분 거리내 첨단 롯데마트, 롯데슈퍼, 삼인병원, 부속병원 등 편의시설 소재

- 전입료 할 인 - 최우선 지원시설 완료
- 부지대 다른 추가비용 없음(전부비용, 기공비용 등)
- 전담공사 전문인 직원
- 1가구 2주택 가능 계획지역임
- 분양가격의 50~60% 저가 분양

☎ 062) 251-4000 / 091) 383-2346

총25세대

시행 : (주) 로베스테이트  
시공 : (주) 지앤백개발